

삶을 반성하기보다 낙관론 강요하는 희망동화들

‘희망동화’가 얻은 것과 잃은 것

최기숙 | 연세대 국문과 강사

희망을 이야기하는 세권의 책은 어렵고 고단한 이 삶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살 만한 가치와 미덕이 숨어 있다는 희망을 전파하려는 듯하다. ‘따뜻한’ 동화에 열광하는 건 이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고 시달려왔는지 방증해준다. 하지만 막연한 희망으로 위안받기보다는 무엇을 위한 희망인지 되물을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생의 지향 가치를 발견해내려는 성찰이 필요하다.

서가에 꽂힌 책들은 그 사람 자신의 내면 세계를 투사한다. 호화 장정본 전집은 그 사람의 지적 권위에 대한 동경을 고백하며, 종교 서적은 그 사람의 숭고함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준다. 각종 실용 서적들은 그 사람의 다급한 필요나 관심 분야, 직업을 드러내고, 그것들이 한번도 펼쳐지지 않은 새 것으로서 민망함을 간직할 때 그들은 본의 아니게도 그 주인의 콤플렉스나 과욕, 혹은 게으른 내막을 내보인다. 소설이나 시집류는 그 사람의 문학 취미, 삶에 대한 여유를 내비치며, 일렬로 컬렉션된 잡지류나 만화책들은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지켜가려는 기호의 세계를 표상한다. 왜 샀는지 알 수 없을 그런 책들은 구매자의 모호한 부분을 지시하거나 그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불안의 시기를 추적할 수 있는 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책벌레》(박민수, 문학동네)의 저자 클라스 후이징은 작중 인물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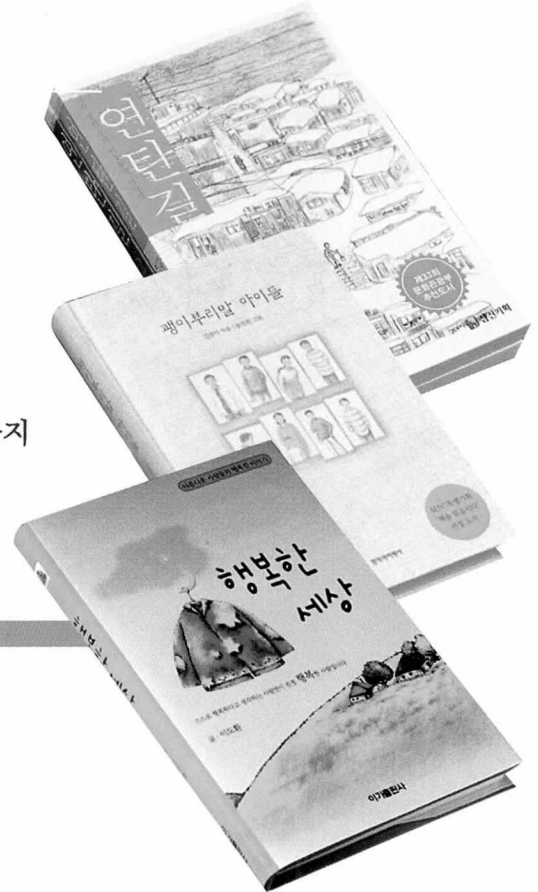
“우리 책들은 책 주인의 확장된 육신이며, 따라서 칭찬이든 질책이든 그에 대한 평판은 우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요즘 우리 독서계를 압도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은 우리나라 현대 문화의 정신성을 양적으로 투사해준다. 그들 중 일

부가 텔레비전이 소개한 책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인다면 문제의 초점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선회한다.

기술 복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유행 속에서 소속감을 얻는다. 개성은 유행이라는 이름 속에서 남발됨으로써 훼손당하고, 그 본의를 상실한다. 이 모든 세태를 주관하는 텔레비전은 이제 독서 문화까지 장악함으로써 정신성의 공간을 확보하려 한다. ‘위기’의 기로에 섰다는 책들이 이제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통해 트렌드로 부상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적 필요에 의해서, 혹은 개인적 문제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트렌드의 홍수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누구나 읽는다는 ‘그 책’을 읽는다. 이제는 ‘책읽기’마저도 유행의 행성 궤도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려 하는 것이다.

만능 재주꾼 텔레비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집도 고쳐주고, 어려운 환자들에게 성금도 모아주며, 잊고 있던 첫사랑도 찾아주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고생 많았던 가수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릴 기회도 제공한다. 텔레비전이 열광한 책은 단기간 내에 발행부수의 기록을 경신한다. 논리



와 이성을 압도하는 매력을 담보로 텔레비전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따뜻한 행복을 선사한다는 다음 세권의 책이 주목하는 독자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동화의 나르시시즘으로 회귀해

《앵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창작과비평사), 《연탄길》(이철환, 삼진기획), 《행복한 세상》(이도환, 이가출판사) 등 세권의 책이 점령하고 있는 주제적 영역은 가족 갈등, 일탈, 병, 장애, 궁핍 등 소외와 불운에 관련돼 있다. 직접적인 삶의 진리를 경험하려는 사람은 소외된 삶의 모습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던 아도르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소외된 삶을 그린 이 세권의 책을 통해 ‘직접적인 삶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어봄직하다. 동화의 형식을 취하는 이 책들은 가족과 이웃들의 사랑만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의지처라고 말해주는 듯하며, 어렵

고 고단한 이 삶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살 만한 가치와 미덕이 숨어 있다는 희망을 전파하려는 듯하다. 이처럼 '따뜻한' 동화에 열광하는 건 이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고 시달려왔는지 방증해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 상처를 주는 쪽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할 때, '희망 동화'에 손길을 건네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 겸손이 결핍돼 있었음이 분명하다.

인정과 세태를 반영한다던 여론이 사악하고 영리한 은폐와 기만의 매체 전략으로 변용되고, 정과 의리의 인간관계가 음모로 점철된 권력 관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소심하다는 증거가 됐다. 순하고 착한 사람은 손해보기 마련이고 독하고 악착 같아야 잘 산다는 논리는 회화적인 모방 속에서 반성의 기회조차 상실하고 만다. 사람들은 점점 영악해지고 인정은 메말라가는 듯하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의 논리는 욕망에 현사하기 위한 맹목적 질주로 치환됐다. 삶의 속도를 제어하는 반성의 기제는 삭제해야 옳다고 믿는다. 세상의 난폭함과 광기의 지배력에 전율한 사람들은 '진리'의 폭력성과 소통 체계의 한계를 폭로하면서도 질주의 관성에 편승한다. 이런 관계 속에서 '희망 동화'가 주는 격려는 소심하고 착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울리는 '괜찮다'는 주문과도 같다.

그러나 위의 책들에서 우리는 희망의 원리가 탐욕에 헌사되는 것을 제어하는 반성력을 찾기보다 현재의 삶도 살 만하다는 낙관론으로 귀착하게 된다. '팽이부리말'의 세계에서 마을 사람들을 연대하는 힘은 감정적 코드다. 조건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영호, 불쌍해서 도둑고양이를 기르는 명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이 이곳 출신이라고 제자에게 말하며 마음을 여는 선생님 등은 혈연이 아닌 정서적 연대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 연대는 팽이부리말을 떠나는 게 목적이었던 선생님이 숙자네 다락방에서 셋방살이 할 것을 선택한다는 회귀의 코드를 구성함으로써 타자의 문화를 배제하는 동종교배적 부

자연스러움을 형성한다.

《팽이부리말 아이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곳 주민들이다. 이곳의 가난은 부자와 대립되는 가난이 아니라 팽이부리말 안에서 확인되는 고립된 가난이다. 이곳의 세계는 타자에게 버림받은 소외된 영역이지만, 그들 또한 타자를 끌어안지 못하고 동화(同化)의 나르시시즘으로 회귀한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어린이들의 성격이나 어려운 삶에 대한 사실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포섭하지 못한 개방성은 오히려 희망이란 묘약을 왜소하게 만든다.

감동 강요하고 낙관적 잠언으로 퇴행해

《연달길》이 보여주는 작위적 사랑은 차라리 도취적이다. 안이한 인과응보나 자기 처벌에 관한 과장된 시선을 단지 실화라는 이유만으로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마음을 작위적으로 설정하거나 부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자연화하는 것은 위험하기조차 하다.

아버지의 친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을 유괴한 아저씨를 따라갔던 수진이 이야기는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왜곡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범죄 행위에 대한 자기 처벌이나 반성보다 아이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동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반성을 유기한다. 속웃이 다 짓을 정도로 피를 흘리면서도 딸이 모르게 하려고 땀을 닦는 척하면서 학교까지 바래다준 아버지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반하면서까지 강요된 어색한 부성을 보여준다. 좋은 아버지란 표나지 않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니 부자연스러운 이벤트를 감내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버린 남편에 대해 성직자처럼 용서를 말하는 어머니의 발언에는 리얼리티가 부족하다. 용서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겪었을 고뇌의 여정이 표현되지 않는 한 공감은 확보되기 어렵다. 그것은 차라리 근거 없는 주장이며 맹목적인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류는 '강요된 감동'만을 양산함으로써 독자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행로에 제동을 걸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그 계몽성마저 의심받을 것이다.

《행복한 세상》 또한 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려는 의도로 단편 형식의 이야기들을 모은 것인데, 지은이의 순전한 창작인지 기존 이야기들의 편집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 이야기들은 조그맣고 소리가 나지 않는 개인의 삶이 무한한 선행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영위되고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듯하다. 나의 사소한 태도가 알 수 없는 데까지 번져나가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는 기대마저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독자가 기대한 희망은 자기의 현재에 만족하라는 낙관적 잠언으로 퇴행하게 된다. 책을 읽고 난 후 독자의 마음과 정신에 맴도는 여운은 텍스트 안에서 그려지는 동심원의 과장 형태여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삶을 에워도는, 넘쳐나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텍스트의 생명성이자 생산성이다.

무엇을 위한 희망인지 되물을 수 있어야

《어린왕자》를 읽는 제일 큰 즐거움은 어른이 돼서도 자기 안에 살아있는 동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발견에 있다. 이는 정신의 유치함이나 미성숙과는 구분되는 순수하고 맑은 정신성과 감성, 아직 아무것도 썩어지지 않은 순도 높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자기 확인의 기쁨을 선사한다. 이런 이유로 종종 어른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이름의 책을 선택한다. 삶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행복과 희망에 관해 배우고 싶어하지만, 사람은 원래 착하다거나 나쁘게 살면 벌받게 된다는 복수심에 근간한 인과응보는 인간성을 오히려 협소하게 만든다. 막연한 희망으로 위안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한 희망인지 되물을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생의 지향 가치를 발견해내려는 성찰이 필요하다.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독자의 몫이며, 한편의 좋은 책은 이런 물음들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독자들을 요긴한 책의 숲으로 기꺼이 안내하게 될 것이다. ■

최기숙씨는 연세대 국문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연세대, 덕성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센 꿈> 등을 펴냈다.